

EE Externship 참여후기



2022년 겨울학기 참여학생 3인



KAIST전기및전자공학부에서는 2021년부터 EE Externship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EE Externship은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사과정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하여, 기술 강소 창업기업 중 초기 스타트업 또는 액셀러레이터 기업에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창업벤처 생태계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창업기업과 학생을 매칭시켜주는 Outbound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도 겨울학기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3인의 후기 인터뷰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본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E Externship 특징

- 참여기업 _ AI 반도체, 회로 설계, 로봇,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 (EE Externship 3기 기준) 고큐바테크놀로지, 딥인사이트, 라이드플러스, i3systems 등
- 급여 _ 월 200만원 이상, 4대 보험 및 기관부담 보험료 지원
- 혜택 _ 인턴십 학점 인정 (8주, 3학점), 현장실습 지원비 월 50만원 지급
- 대상 _ 학부 3학년 이상, 대학원 신입생 중 도전적이고 적극적이며 기업가정신 및 창업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학생
- 파견기간 _ 8주





라이드플럭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호진 학생



저도 고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집단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경험, 그 집단에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즐거움은 대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EE Externship 지원 계기

A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이 목표였던 지라, 실패하긴 했지만 E5 KAIST도 참가해보고 앱도 만들어서 출시도 해보곤 했습니다. 이런 실패들을 겪고 나니 지금 실제로 투자를 받아서 잘 굴러가고 있는 스타트업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인턴십 지원 및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또한 선발되기 위한 팁들이 있을까요?

A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EE Externship을 통해 했습니다...만, Externship 공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회사에 미리 컨택하였고, 저를 꾸준히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팁이라고 할 건 없고, 그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턴십을 위한 커리큘럼 및 업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A 제가 인턴십을 했던 회사는 비교적 스타트업 중 큰 규모에 속해서 나름 체계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진행하면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면서 유동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진짜 체계적인 틀을 원한다면 스타트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크나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EE Co-op 등 다른 인턴 프로그램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셨나요?

A 다른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해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보다 Dense한 경험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 중입니다.

Q EE Externship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위치가 대전, 성남,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 제가 인턴십을 했던 회사는 제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어 제주에서 근무하였고, 제주 근무 시 체류비를 월 110만원(세전)을 지원해주어서 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턴십 전 후로 항공권도 지원해 주셔서 제주에 간다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원한다면 제주를 느낄 수도 있고요.

Q EE Externship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A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러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개월 정도의 인턴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파악하겠다는 건 좀 큰 목표였나 싶습니다. 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지만요. 하지만 배운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 생각해서 실행하기 등 회사와 관련해서도 많이 배웠고, 또 제주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분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압박 없는 공부의 즐거움을 다시금 깨닫고, 나 자신은 어떤 것, 어떤 상황을 좋아하고 싫어하며 잘하고 못하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것이 많았던 2달이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추천하시는지, EE Externship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도 고민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집단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경험, 그 집단에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즐거움은 대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안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i3systems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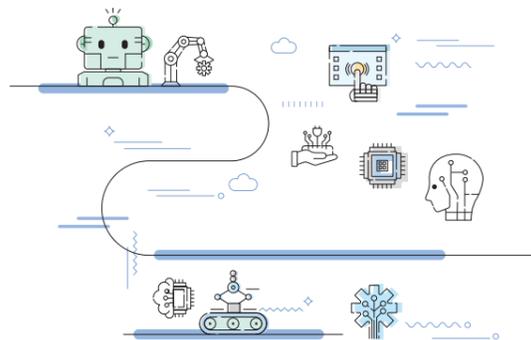
김서영 학생



실험 장비들도 억단위의 장비임에도 직접 사용해보고,
그 원리를 배우고, 다른 장비들과의 차이점 또한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이 하기 힘든 경험인데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EE Externship 지원 계기

A 4학년이 되면서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개별연구는 해왔기에 연구실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대체로 알게 되었지만 취업 후 회사 생활은 경험해보지 못해 이렇게 인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반도체 공정설계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회사를 찾게 되어 회사 내에서의 반도체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경험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Q 인턴십 지원 및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또한 선발되기 위한 팁들이 있을까요?

A 인턴십에 지원한 후에 교수님들과 면담을 하고, 이후 지원한 기업과 면접을 보았습니다. 선발되기 위한 팁으로는 그 분야에 충분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관련 활동을 미리 조금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 수업들을 듣고, 적외선 센서 반도체 공정 개별연구를 두가지 연구실에서 총 3학기 동안 했던 경험이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턴십을 위한 커리큘럼 및 업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A 사실상 인턴십 첫날 아무도 인턴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못해서 결국 인턴 과정 내내 사무실에 제 책상은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인턴이 잘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다들 당황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공정에 학부생이 참여할 기회는 잘 없는데 클린룸에 들어가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회사분들도 최선을 다해 잘 설명해주시려 노력해주셨고, 특히나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학부생이라 생기는 진로고민 상담을 하거나 모르는 개념, 하면 좋을 활동 등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Q EE Co-op 등 다른 인턴 프로그램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셨나요?

A 다른 인턴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아 그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Q EE Externship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위치가 대전, 성남,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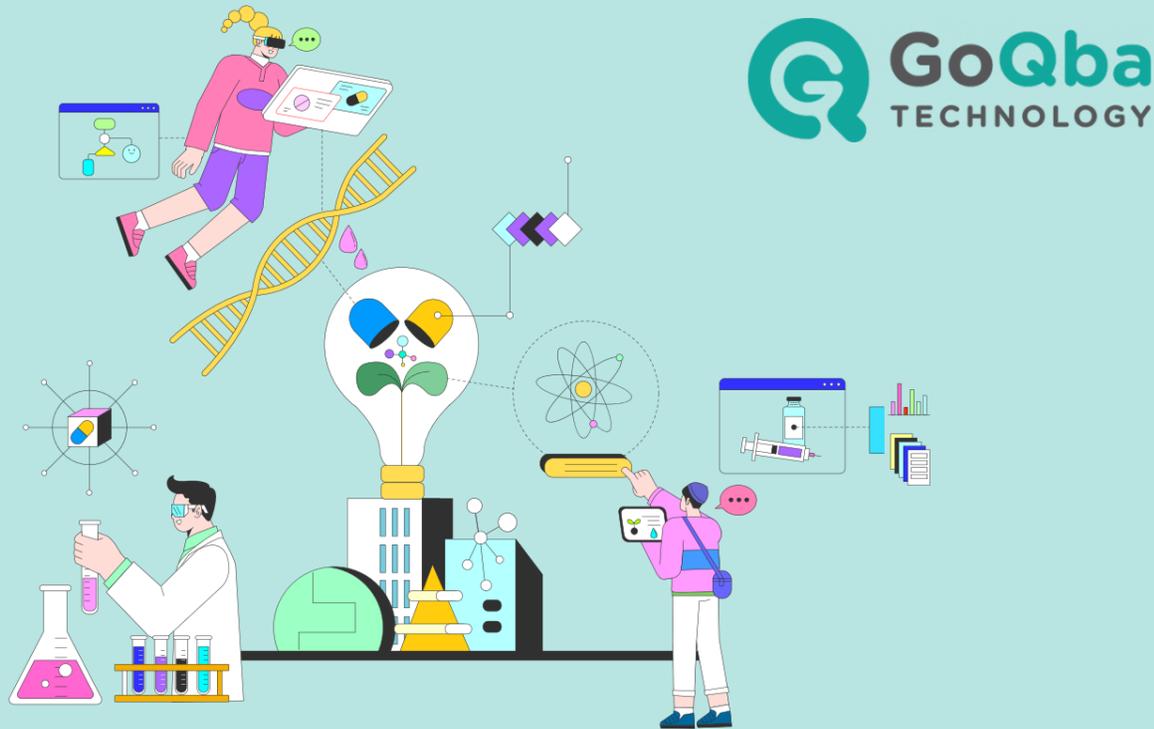
A 회사가 대전시 장동에 있었기에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버스로 출퇴근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아침과 점심을 주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렇게 식사를 하여 식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Q EE Externship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A 우선 회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한 부서에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모두 함께 연구를 하는 데도 불필요한 과정 없이 매끄럽게 모두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클린룸에 들어가 방호복을 입고, 여러가지 화학 약품들을 써보기도 하고 공정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 각 과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실험 조건은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등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험 장비들도 억단위의 장비임에도 직접 사용해 보고, 그 원리를 배우고, 다른 장비들과의 차이점 또한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이 하기 힘든 경험인데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추천하시는지, EE Externship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op보다 기간도 훨씬 짧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험하고, 여러 경험을 쌓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고큐바테크놀러지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에 전문적인 사람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두각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서 학생

☞ 첫 번째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좋은 기술 및 아이템 뿐 아니라 홍보,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해야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EE Externship 지원 계기

A 진학하는 랩이 자율주행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에 해당 분야를 독학해 보았습니다. 독학만으로는 이렇게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없었고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지 알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인턴십 지원 및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또한 선발 되기 위한 팁들이 있을까요?

A 각 회사마다 선발에 요구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제가 가게 되었던 회사의 경우, cv와 면접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업무에 대한 열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저의 전공이 전산과가 아님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도 및 열의를 보여준 것이 선발하실 때 좋게 봐주셨다고 합니다.

Q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턴십을 위한 커리큘럼 및 업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A 스타트업 회사이다 보니 개략적인 커리큘럼 및 업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업무 또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를 완료하거나 어떠한 점을 진행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Q EE Co-op 등 다른 인턴 프로그램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셨나요?

A Co-op와 차이점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Co-op의 경우 3에서 말한 커리큘럼이나 업무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반면 Externship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Co-op의 경우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어려움 없이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반면, 자유가 비교적 제한됩니다. 그에 반해 Externship의 경우 정해진 커리큘럼이 체계적이지 않은 대신 필요성을 잘 설명한다면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고, 이를 따라가는 것이 편하시다면 Co-op가 좋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원한다면 Externship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EE Externship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위치가 대전, 성남, 서울 등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 제가 다녀왔던 회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었고, 출퇴근 및 숙식 모두 개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Q EE Externship을 통해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A 첫 번째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단 좋은 기술 및 아이템 뿐 아니라 홍보, 인사, 재무 등 다양한 분야를 관리해야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경우 지원 시 원하였던 머신러닝 및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Q 후배들에게 추천하시는지, EE Externship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Externship의 특성상 스타트업에 가게 되는 것이기에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추천할 만한 학생은 어떠한 틀에 박힌 업무보다 자유로운 업무를 좋아하고, 주어진 업무보다는 스스로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에 전문적인 사람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두각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